

영암 한옥학교 잘 나간다

영암군이 한옥 시공 전문인력 양성과 한옥건축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암군은 한국 목조건축학교와 공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음달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상호 교차 학습에 위치한 영암 한옥학교(구 상호 장전초등학교)에서 한옥 클러스터 조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옥건축 인재육성사업'을 실시한다.

교과부와 전남도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평일에는 한옥 시공 기능사, 한옥시공기술자 2개 과정, 주말에는 한옥기능사 1개 과정을 4개월간 2기에 걸쳐 240명의 교육생을 전액 무료로 교육한다.

작년 전문인력 200명 배출 이어 올 240명 교육 11월엔 구립서 전국 첫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 한옥건축 교육을 희망하는 자와 이직자 및 전업 희망자 또는 전문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건설 기능인이다.

교육은 국내최고의 실력으로 12년간 인력을 양성한 한국 목조건축학교의 교사진과 (사)한국 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 담당한다. 커리큘럼은 전통 한옥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공구 사용법, 한옥건축 실습 등 한옥건축의 이론과 설계, 시

공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영암군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韓)스타일' 육성사업에 선정돼 200여명의 한옥건축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취업률은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은 2007년 목포대와 휴먼건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학 협정을 체결, 목포대 휴먼건축연구소

영암으로 이전해 한옥건축 자재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오는 11월 구립마을에서 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2020년 아시아 및 지구촌 주가·조경박람회 개최와 한옥산업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광수 영암군 도시개발과 주택담당관은 "한옥 시공인력 배출로 한옥을 보다 저렴하고 쉽게 지을 수 있게 돼 한옥건설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한옥학교 배출인력이 지난해 판매에서 한옥 54채에 한옥 10대 특산물, 10대 한약초 등을 전시 판매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암=박재신기자 pjs@

지방자치 홍보 박람회 화순 '테라피 타운' 大賞

화순군의 '테라피 타운' 브랜드가 제 1회 광주·전남 자치행정 홍보박람회에서 대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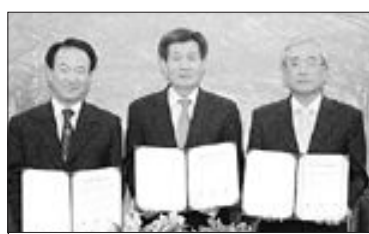
광주 MBC 주최로 지난 16~19일 광주 삼부지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광주·전남 지역 지자체와 공사·기업 등 225개 기관·단체가 참가했다.

화순군은 바이오산업과 의료산업을 아우르는 슬로건 '테라피 타운'과 2010 전남 도민제전 개최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내고장 자랑관에 화순명물인 기정떡·함박차·파프리카·방울토마토 등 시식코너를 마련하고 내고장 장터관에 화순 10대 특산물, 10대 한약초 등을 전시 판매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화순군은 '비전 1030'을 통해 잘 사는 화순 건설을 목표로 자연과 직결 농가에 전화를 거는 등 피해 예방을 독려한 점도 효과를 봤다. 나주배농협 관계자는 "4년 전 4월 말에 닥친 댜사리로 맺은 열매가 떨어지는 큰 피해를 보았던 사례가 있다"며 "방상(防霜)시설 가동 등 막바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홍보부스를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 농업발전 3단계 전략, 고려인산 시원지 옛 명성 회복, 화순 풍류문화 큰잔치와 2010 도민제전의 성공적 개최 등 4가지 주제로 짜인 세이브게 꾸며 관람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담양·함평·장성군 "관광 공동 마케팅"

'대나무골' 담양군과 '나비의 고장' 함평군, '홍길동의 고향' 장성군이 서로 손을 잡고 관광분야 공동마케팅에 나선다.

담양군 주영찬 군수 권한대행, 함평군 박윤식 부군수, 장성군 박양종 부군수 등 3개 군 부자치단체장은 20일 담양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광분야 업무교류 협력 협약식"을 갖고 관광업무 발전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과 윈-윈 공동 마케팅을 통해 관광분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로 했다. <사진>

협약서에 따르면 이들 3개 자치단체는 축제를 비롯해 관광업무에 대한 기획과 홍보, 행사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친선과 관광산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광분야 업무추진과 관련, 그동안 쌓아온 관광분야 노하우에 대한 공유를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수능 합격기원 왕인 학등 달기

왕인박사의 기운과 월출산의 정기를 빌어 학문 성취를 축원하는 '수능 합격기원 왕인학등 달기'행사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암군은 수능 D-100일에는 참가한 수험생들에게 영암 달기쌀로 만든 '수능합격 엿'을 배부해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영암군 제공>

왕인박사의 기운과 월출산의 정기를 빌어 학문 성취를 축원하는 '수능 합격기원 왕인학등 달기'행사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암군은 수능 D-100일에는 참가한 수험생들에게 영암 달기쌀로 만든 '수능합격 엿'을 배부해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영암군 제공>

장성에 '홍길동 테마역'

郡, 5억 들여 폐객차 활용 체험시설 조성

장성군이 '홍길동의 고향'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홍길동 테마역을 조성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사업비 5억원을 투자, 장성역 부지 내에 새마을호 폐객차 2량을 2층 구조로 설계해 홍길동 테마역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홍길동 테마역은 열차 이용객과 관

객을 대상으로 홍길동 콘텐츠 사업 및 관광지, 특산물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중간보고회를 통해 내·외부 구조와 운영 프로그램 등을 확정하고 운영관리 주체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장성=류준성기자 yjs@2

홍길동 테마역 조성계획에 의하면 내부구조는 홍길동의 고향 장성, 홍길동의 발자취,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 장성관광 안내 등을 중심으로 홍보패널과 TV 애니메이션, 출판판화, OST 듣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로 조성된다. 또 홍길동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조성되고 모바일 게임 활로도 즐길 수 있다.

테마역 외부는 열차의 멋을 살리고 홍길동 캐릭터를 활용한 외부 랩핑을 통해 열차를 지나치는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모션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장성=류준성기자 yjs@2

"냉해 걱정했는데..." 나주배 작황 호조

인공수분·물주기 등 적절한 대처...평년작 웃돌아

개화기 냉해와 고온 등으로 작과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됐던 나주지역 배작황이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나주배농협과 농민들에 따르면 인공수분 이후 최근 과수 작과 상태를 파악한 결과 평년작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15년 이상된 성목(成木) 기준으로 평년작 한 열매가 500개 이상 맺어 수아내기를 고려하더라도 200~250개 수준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배농협은 보고되고 있다.

수령과 크기 등에 따라 다소 차이

가 있지만 수확까지 관리해야 할 적정 열매 수는 250개 안팎이다.

배 꽃눈이 형성되기 시작한 지난달 나주 지역은 최저기온이 영하 3°C까지 떨어지는 등 냉해가 휘몰아쳤다.

여기에 꽃이 만개한 10일 전후로 예년 기온 18°C를 훌쩍 뛰어넘은 25°C 안팎을 기록하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이 때문에 일부 암술 씨방이 열거나 수정에 필요한 적정수분이 부족, 착과율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었다. 배농협은 "기대 이상의 착과율을 보인 것은 인공수분과 물주기 등 사

전교육에다가 농가가 적절히 잘 대처한 데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기상 여건이 악화되자 10여 차례 걸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안내와 직접 농가에 전화를 거는 등 피해 예방을 독려한 점도 효과를 봤다.

나주배농협 관계자는 "4년 전 4월 말에 닥친 댜사리로 맺은 열매가 떨어지는 큰 피해를 보았던 사례가 있다"며 "방상(防霜)시설 가동 등 막바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나주·영암지역은 2천900여 농가에서 2천800ha를 재배, 전국 생산량의 18~20%가량인 연간 7만여 톤을 생산하는 대표적 배 주산지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흥지청, 유치 초등생 초청 '검찰청 테마여행 체험행사'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태철)은 20일 장흥 유치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55명을 초청해 '검찰청 테마여행 체험행사'를 실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제 46회 법의 날'을 앞두고 국민과 법질서 확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검찰 활동의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김용희기자 kykim@



참가 학생들은 검찰업무 소개를 비롯해 검사 및 피의자 체험(영상녹화 조사실), 수형자 체험(구치장) 등을 한 후 광주지법 장흥지원 1호 법정을 견학했다.

Real estate auction notice for Kwangju, Jeonnam region. Includes contact info: 062)364-8700, 010-4608-3700.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